

영화 '윤희에게' 배우 김희애

“안타까운 첫사랑 섬세하게 표현 어떤 사랑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영화”

“어떤 사랑도 괜찮다고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영화라서 좋았어요.” 배우 김희애(52)가 오는 14일 개봉하는 영화 ‘윤희에게’를 정의한 말이다. ‘윤희에게’는 우연히 윤희에게 온 편지를 읽게 된 윤희의 딸 새봄이 엄마가 그동안 숨겨온 비밀과 첫사랑을 알게 되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김희애는 첫사랑을 찾아가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윤희를 연기했다. 11일 종로구 소격동에서 만난 김희애는 “윤희의 사랑도 여러 사람의 삶, 여러 사랑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희는 딸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그 첫사랑이 사실은 여고 시절 친구 준(나카무라 유키 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희애는 “말보다도 무언가 감춰지고 비밀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서, 그게 더 어려웠던 것 같다”며 “그 감정을 몇개월 동안 계속 갖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쿠어 연기를 하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는지 묻자 “전혀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제 첫사랑은 사실 기억이 안 나서(웃음) 비슷한 소재의 쿠어 영화를 많이 찾아봤어요. ‘브로크백 마운틴’이나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등을 봤는데 감동적이었어요. 무언가 울컥했는데, 매우 소중한 감정이잖아요. 그런 감정을 제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덕분에 윤희를 연기하면서 더 몰입할 수 있었죠.”

중년이 돼서도 여전히 섬세한 멜로 연기를 보여주는 데에 대해서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 멜로 연기라고 생각한다”고 웃었다.

“제가 이렇게까지 멜로 연기를 오래 할 줄 몰랐어요. 더 할 수 있을지, 나중 일은 잘 모르겠어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이번 영화뿐 아니라 전작 ‘허스토리’(2018) 등 여성 연대가 빛나는 작품에 꾸준히 출연하는 데 대해서는 “여자들이 더 의리 있고 서로 잘 돕고 의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에는 당연히 끌리게 되죠. 최근 여성 연대를 다룬 작품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익숙해진 것 같은 일들이 이슈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뷔한 지 36년이 된 그는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 배우다.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것이 싫어요. 제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열심히 봐서 NG를 안 내려고 해요. 대부분 미리 받아서 많이 보고, 많이 보면 연기를 더 이해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 사실은 엄청 무뎠거든요. 수줍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썩스러움이 없어지면 서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김희애는 현재 내년 방송될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촬영 중이다. 그는 “서로 다른 캐릭터를 오간다는 것이 큰 축복이다”고 강조했다.

“제가 하는 역할 중 그 어떤 것도 제 원래 모습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평상시에 제가 가진 재료로 ‘윤희에게’의 윤희나 ‘밀회’(2014)의 혜원 등이 완성되는 것이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50대 나이에 멜로 연기 할 줄이야”



블랙핑크 ‘피플스초이스 어워즈’ 3관왕 ‘뚜두뚜두’ 뮤비 곧 10억뷰 돌파할 듯

결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대중문화 팬투표 시상식인 ‘2019 E!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1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모니카 바카행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그룹’, ‘올해의 뮤직 비디오’, ‘올해의 콘서트 투어’ 부문 수상자로 확정됐다. 후보로 이름을 올린 세 부문에서 모두 수상에 성공했다.

‘올해의 그룹’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과 조나스 브라더스, 파이프 세컨즈 오브 서머, 페닉 앳 더 디스코, CNCO, 이매진 드래곤즈, 더 체인스모커스 등 경쟁한 스타들을 제쳤다.

‘올해의 뮤직비디오’ 부문에서는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가 방탄소년단과 할시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븐 링스’, 손 멘데스-카밀라 카베요의 ‘세뇨리타’ 등과 경합한 끝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YG는 이번 수상에 대해 “미국 진출 9개월 만에 이뤄낸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는 1975년부터 영화·TV·음악을 아우르는 팬 투표 시상식으로 초기에는 앨범 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2000년대부터 온라인 투표로 방



식을 바꿨다. 지수·제나·로제·리사로 구성된 블랙핑크는 ‘킬 크러시’ 이미지와 스타일리시한 음악 등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팬덤이 두터다. 지난해 6월 발매한 미니앨범 ‘스퀘어업’(SQUARE UP) 타이틀곡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는 K팝 그룹 최초로 유튜브 10억 뷰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유튜브 조회 수 9억9950만여 회를 넘어서 조만간 10억 뷰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 공개된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도 이미 6억4500만 뷰를 돌파했다.

블랙핑크는 최근 8개월간 23개 도시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과 내년 1~2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돔 투어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한국-레바논전 생중계

TV조선, 14일 밤 10시

TV조선은 오는 14일 밤 10시 2022 축구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인 한국-레바논전을 단독으로 생중계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대표팀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중동의

북방’ 레바논과 경기를 치른다. 대표팀 공격의 최전선에는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보르도)가 출전한다.

한국은 레바논을 상대로 12번 만나 9승2무1패를 기록했다.

한편, TV조선은 내년 3월 31일 치를 2차 예선 마지막 원정전 스페인과의 경기도 중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콩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45 맞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2019 지구촌 어린이들이 희망더하기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혈성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모모 유아 놀자 스페셜 50 뽀뽀모모 유아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콩따리(재)	00 고향전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다큐 공감(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영재발굴단(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50 2019 WBS 프리미어 12 슈퍼라운드 <대한민국:대만>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소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거리의 만천하(재)	5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조선로코-녹두전		30 SBS 8 뉴스 50 KBC 8 뉴스
[11]	35 하룻밤 여행. 소리 40 특선다큐멘터리 스티븐 스피버그의 질문 우리는 왜 중요하는가	10 고립낙원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25 KBS 뉴스 35 KBS 결각 다큐멘터리(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KBS 드라마 스페셜 2019(재)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똥구름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30 띠띠뽀 띠띠뽀	15:10 로보카 폴리(재)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오지 말레이 반도
09:00 출동! 슈퍼윙스	15:55 출동! 슈퍼윙스(재)	-남달라서 더 좋아, 나콘시탐바탕>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가을산 표류기 2부
10:30 한국기행	16:40 똥구름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실악에 가을이 불타오르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큐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2:45 건축탐구 - 집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23:35 미래교육 플러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음 10월 16일 癸丑) ☎ 010-9790-8237

子 36년생 여태까지 추구하여 왔던 바에 탄력이 붙게 되는 날이다. 48년생 원점에서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60년생 개개인의 미진한 힘이라도 합쳐진다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니 협업하라. 72년생 김홍의 쌍곡선이 길게 뻗어 있다. 84년생 과감한 판단이 길성을 부른다. 96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81, 26

丑 37년생 치밀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49년생 인주의 여지가 없겠다. 61년생 대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73년생 아무렇게 다잡아야 할 때이다. 85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97년생 이면의 불씨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2, 34

寅 38년생 주체에 따라서 천양지자가 될 수도 있느니라. 50년생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감이 좋다. 62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눈에 띈다. 74년생 반국을 뒤집을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86년생 금금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 있으면 의문점이 곧 풀리게 될 것이다. 98년생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지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59, 73

卯 39년생 제반사를 살피 위주로 바라보고 조용해야 한다. 51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3년생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87년생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에 충실해야겠다. 99년생 흡수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3, 54

辰 40년생 오랫동안 정성을 다 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52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64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다. 76년생 편견 없는 발상이 성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88년생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국면에 이르렀다. 00년생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20, 88

巳 41년생 바야흐로 김운이 한창 피어나는 때이니라. 53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65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7년생 대고는 없으나 공허할 뿐이다. 89년생 나서야 할 때 많다면 신심을 잃게 되는 법이다. 01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03

午 30년생 한 번 시작하면 술술 풀려나기게 될 것이니라. 42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게 되는 행운을 차지할 것이다. 54년생 밤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함을 알라. 66년생 열마나 치열하고 집요하느냐가 성부의 관건이다. 78년생 실속이 있어야 한다. 90년생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87

未 31년생 두서없는 변수로 인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하는 국면이니 진중하라. 43년생 수익은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다. 55년생 체계를 인식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무탈하다. 67년생 뜻대로 진행되나 이득은 미지수다. 79년생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성국이다. 91년생 타격을 받지는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4, 76

申 32년생 사소함을 차지하고 과단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44년생 구조와 형태가 특이할 것이니 착오 없어야겠다. 56년생 기회는 뜻밖에 왔다가 쉽게 사라질 것이다. 68년생 재물과 인연이 깊다. 80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소비력이 커진다. 92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32, 71

酉 33년생 실력부터 키우고 불 일이다. 45년생 기라리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57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뎠 수밖에 없다. 69년생 장소와 시간의 구분을 철저히 하자. 81년생 형상 너머에 있는 바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아쉽다. 93년생 실리가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5, 72

戌 34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사후에 발생하는 현상을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46년생 공존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58년생 자제치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 말라. 70년생 급속하게 변화하는 양상이다. 82년생 무리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니라. 94년생 집중 한다면 분명히 성취하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5, 14

亥 35년생 급한 상황이 되면서 모순점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리라. 47년생 강력한 타격이 아닌데만 판국 자체를 무시해도 하등의 장애가 없다. 59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71년생 노출 시켜서 좋은 일만 전혀 없다. 83년생 징후가 현실화 될 수 있으니 경제침을 늦추지 말라. 95년생 새로운 틀이 짜여지고 관계가 형성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5, 35